

## 『西漁遺稿』와 그 주변

김 하 라 \*

- 
- |                            |                            |
|----------------------------|----------------------------|
| 1. 『西漁遺稿』와 權常慎             | (1) 문예를 통한 교유와 여성시인에 대한 관심 |
| 2. 권상신의 가계 및 생애와 교유관계      |                            |
| 3. 『서어유고』의 편집 양상과 그 의미     | (2) 주변부 문인과의 교유와 후원자적 관계   |
| 4. 『서어유고』에 나타난 문인 권상신의 경향성 |                            |
|                            | 5. 결론에 대신하여                |
- 

**초록:** 본고는 규장각 소장 문집 『서어유고』를 검토하여, 그 저자인 권상신의 작가적 정체성과 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기존에 유만주나 김려 등 조선후기의 특정한 작가들의 글 가운데 자주 등장한 교유인물로서 이들과 동인적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권상신 자신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었다. 『서어유고』의 내용 및 권상신의 후배였던 유력한 인사들이 그를 위해 집필한 생애기록에 따르면, 권상신의 공적 이력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은 19세기 조선의 관료가 이를 수 있는 최고치에 가까운 성공과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한 빈틈없는 인간관계의 전형적 양상을 보여 주며 이 점은 미관말직에 그쳤던 김려나 사회적인 명망과 거리가 멀었던 유만주와는 꺾 대조적이다. 『서어유고』에 나타난 권상신의 인간관계 가운데 유만주나 김려 등이 차지했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김이양과 같은 관료문인이 그와 대단히 유사한 성향을 보이며 밀접한 교유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김이양과 권상신은 전형적인 경화세족의 고위관료로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주로 기녀 신분이었던 여성시인들과 현저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처지와 취향의 유사성을 보인다.

**핵심어:** 권상신, 『서어유고』, 경화세족, 김이양, 기녀 시인

---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1. 『西漁遺稿』와 權常愼

『서어유고』는 규장각 소장의 5책 필사본 문집이다. 그 저자인 權常愼(1759~1824)은 조선 순조 연간에 경기도 관찰사와 대사헌 등을 역임한 관료문인으로, 본관은 安東이고 자는 綱好(景好 혹은 璉好)이며 호는 日紅堂 혹은 西漁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sup>1)</sup>

권상신에 대해서는 그의 시문 상당수가 金鑣(1766~1822)의 『濶庭叢書』에도 수습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김려를 중심으로 한 “담정 그룹”의 일원으로 처음 조명되었다.<sup>2)</sup> 이후 그가 俞晩柱(1755~1788)의 『欽英』에 빈번히 등장한 것과,<sup>3)</sup> 그 교유관계에 일견 나타나는 상층계급적 동질성이 조금 과장되어 부각된 것이 맞물려,<sup>4)</sup> “京華世族” 권상신의 존재는 열의 넘치는 讀書家 유만주를 18세기 조선의 “경화세족 서화 收藏家” 가운데 유력한 인물로 오인하도록<sup>5)</sup>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沈魯崇(1762~1837)의 방대한 문집이 영인되며, 그 가운데

- 
- 1) 『서어유고』에 대해서는 우선, 김영진 교수가 집필한 규장각 자료 해제에 참조된다. 한편 해당 해제에서는 권상신의 몰년을 1825년으로 비정했는데, 혹 양력을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한다. 권상신은 순조 24년(음력 1824) 12월 16일에 별세했다. 본고에 기술된 날짜는 현대 저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력을 기준으로 삼은 것임을 밝혀 둔다.
  - 2) 박준원, 1994 「담정 총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영진, 2000 「유만주의 한문단편과 기사문에 대한 일고찰」, 『대동한문학』13 ; 김영진, 2008 「이유명의 『동포초초』와 일흥당장 판심 원고지」, 『고전과해석』 5. 후자의 논문에서는 권상신에 대해 “유만주의 친구로, 또 김려의 친구로 문학사에 주목되는 인물이다. 유만주의 『흙영』에서 그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라 했다. 필자는 권상신의 광범위한 교유에 대해 지적한 김영진 교수의 논의를 받아들이는 한편, 그 교유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김지연, 2008 「『흙영』에 나타난 유만주의 독서생활과 서지학적 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5) 황정연, 「18세기 경화세족의 서화수장과 예술취향, 유만주와 『흙영』」(『내일을 여는 역사』 40, 2010)에서는 유만주가 상상의 120폭 병풍에 실고 싶어 한 그림 및 지도의 목록, 말하자면 위시리스트를 실재하는 수장품으로 간주하여 유만주를 대규모의 서화 수장가로 오인했다.

권상신과의 서신 교환이 있었던 점이 포착되어 그들의 교유관계의 일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sup>6)</sup>

한편 권상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서어유고』 소재의 「南臯春約」(1784), 「貞陵遊錄」(1784), 「隱巖雅集圖贊」(1788) 등 18세기 후반 노론계 자제들의 한아한 여가 문화와 교유의 양상을 보여주는 글과, 「驢牛說」(1781), 「水橋變名睡覺說」(1783) 등 일상의 소소한 감회를 재치 있게 표현한 글 등 20대 소작의 산문이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sup>7)</sup>

요컨대 권상신은, 중앙 정계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성 있는 문학세계를 구축했던 몇몇 주변부의 사대부 문인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들의 교유인물로 주로 언급되었고, 또 조명을 받은 작품 역시 소싯적 그의 교유 양상을 포괄하며 젊은이로서의 재치를 보여주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문인으로서 그의 면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야 할 점이 더 많이 남아 있다 하겠다. 그리고 고위관직을 역임한 그의 현달한 생애가 앞서 언급한 주변부의 문인들과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 그 구체적인 교유의 양상도 해명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권상신의 생애 관련 자료와 그의 문집 『서어유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기존에 언급된 그의 교유인물인 유만주와 김려, 심노승 등의 저술에서 『서어유고』의 내용과 상응하는 대목들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문인으로서 권상신의 정체성과 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 삼고자 한다.

6) 김영진, 2014 『『효전산고』 해제』, 학자원. 이 해제에는 김영진 교수 소장본으로, 권상신이 심노승에게 보낸 친필의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 해당 편지는 『서어유고』에는 없다.

7) 「남고춘약」과 「정릉유록」은 이종묵 교수의 『한시마중』(태학사, 2012)에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隱巖雅集圖贊」은 유홍준 교수의 『화인열전』(역사비평사, 2001)에서 김홍도를 언급하는 가운데 소개되었다. 「驢牛說」에 대해서는 이종묵 교수가, 「水橋變名睡覺說」에 대해서는 안대회 교수가 한 번역과 해설이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칼럼을 통해 제공되었다. 다만 안대회 교수는 해당 글에 언급된 “水橋”를 종로에 있던 수포교라 추정했으나 유만주의 『흙영』에 언급된 1783년 무렵 권상신의 거주지가 “水西” 즉 창동천 서쪽, 명동 인근이었음을 감안하건대 해당 지명은 “水閣橋”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수각교는 지금의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쪽에 있었다.

## 2. 권상신의 가계 및 생애와 교유관계

권상신은 1759년 아버지 權植(1727~1765)과 어머니 擘州李氏(1728~1791)의 1남 1녀 가운데 아들로 태어났다. 그에게는 安東 金晩根에게 출가한 누이가 있으며, 측실 소생의 이복형제 權縻,<sup>8)</sup> 그리고 金命崙에게 출가한 이복누이도 있다.

한편 권상신의 初名은 “縻”이다. 『조선왕조실록』 순조 4년(1804) 9월 8일조에 “미국에서 대사간 權縻의 상소를 가지고 아뢰기를 云云” 하는 언급이 있고, 같은 해 9월 16일의 “대사간 권상신이 흥재민에 대해 국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다”라는 조목 뒤에 “권상신은 권선의 고친 이름”이라 부기한 것을 보면 1804년 9월에 공식적으로 개명한 듯하며 40대 초반까지는 초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권상신이 일곱 살 되던 해 부친이 사망했으므로, 그는 주로 조부인 權澹(1710~1791)의 영향 하에 성장했다. 권도는 자가 道以(道爾), 호는 懶窩로서 예조판서와 경기도 관찰사 등을 지낸 고위관료이다. 그와 교유한 인물로는 李敏輔(1720~1799), 李最中(1715~1784), 趙榮順(1725~1775) 등이 확인된다. 이민보의 『豊墅集』에는 권도에게 써 준 시인 「示府伯權道以」가, 이최중의 『韋庵集』에는 그에게 보낸 편지인 「與權道而-澹」가 실려 있다. 그리고 조영순은 1773년에 아들 趙貞喆(1751~1831)에게 보낸 편지에서 “權道而 台丈의 일에 마음이 놀라고 기운이 저상케 된다. 때때로 지붕을 쳐다보고 벽을 맴돌고 있노라니, 거의 즐거운 줄 모르겠구나.”<sup>9)</sup> 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당시 권도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걱정하는 기색이 내비친다. 조영순과 권도가 집안끼리 잘 알고, 이해관계에서 공유하는 점이 있는 처지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권도의 셋째 누이의 남편이 조영순과 종형제인 趙榮進(1703~1775)이고, 조영순의 숙부인 趙觀彬(1691~1757)은 권도의 부친 권업의 행장을 쓰기도 했으므로, 권도의 가문은 이들 양주조씨 집안과 세교가 있

8) 權縻: 『안동권씨추밀공파대보』에 권상신의 아우로 되어 있는 權常五(1762~1829)가 그이다. 그의 자는 士教이고, 黔屯浦 萬戶를 지냈다.

9) “權道而台丈事, 驚心喪氣, 有時乎仰屋逸壁, 殆不知爲惊耳.”(趙榮順, 『退軒集』 卷7, 「寄貞兒癸巳」)

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권도의 손자 권상신은 이후 조영순의 아들 조정철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권도의 필사본 문집 『文湖雜著』가 손자의 문집 『서어유고』와 함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문호잡저』에 대해서는 그 저자 및 수록 내용 일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을 뿐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서어유고』와의 관련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짓자면, 『문호잡저』에는 권도가 스스로 집필한 「自碑文」(1785)과 그가 아들 권식을 위해 쓴 묘지명이 실려 있어, 권상신 선대의 가계를 재구하는 데 중요한 1차 자료가 된다. 이에 따르면 권상신의 할머니는 鄭亨益의 딸 東萊鄭氏와 趙榮最의 딸 咸安趙氏 두 분이고, 어머니 전주이씨는 李廷燾(1705~1762)의 딸이다. 그리고 고모 셋은 각각 豊山 洪善浩(=洪采漢), 靑松 沈念祖(1734~1783), 光山 金斗七에게 출가했다. 이에 이정황의 손자인 李惟命(1767~1817)과는 외사촌이 되고, 홍선호의 아들인 洪樂正, 심엽조의 아들인 沈象奎(1766~1838)와는 고종사촌 사이가 되는 등, 권상신은 동래정씨와 함안조씨, 전주이씨, 풍산홍씨, 광산김씨, 안동김씨, 청송심씨 등 당대 유수한 가문의 현달한 구성원들과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도가 쓴 아들 권식의 묘지명에는 손자의 이름이 ‘權’으로 표기된 것은 물론, 교관 벼슬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는 권상신이 동몽교관으로 재직중이었던 1788년경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 이후 그의 생애 및 그 다음 세대의 가계에 대해서는 洪直弼(1776~1852)의 「判中樞贈右議政權公墓碣銘」(1845), 鄭元容(1783~1873)의 「禮曹判書贈右議政權公-常愼-墓誌銘」, 趙斗淳(1796~1870)의 「禮曹判書贈右議政權公-常愼-諡狀」(1864) 등 19세기의 유력한 관료문인들이 권상신을 대상으로 하여 남긴 기록이 상세하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권상신의 이력부터 살펴보자면 그는 약관이 되기 전에 증광시에 급제하고 연달아 승상시에서 수석했으며, 병오년(1786)에는 진사시에서 장원을 하는 등 일찍부터 학업에 재능을 보여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무신년(1788)에 정릉참봉이 된 이래, 동몽교관과 의금부 도사, 사헌부 감찰, 형조정랑

으로 착착 승진을 거듭했고, 병진년(1796)부터 무오년(1798)까지는 동강현감, 남포현감,<sup>10)</sup> 신천군수 등 지방관으로 주로 활동했다. 신유년(1801)에 증광문과와 전시에서 수석을 한 이후로는 동부승지, 좌승지, 형조참의, 호조참의 등 요직에 나아갔고, 계해년(1803)에는 동지부사로 연경에 다녀왔으며<sup>11)</sup> 대사간과 대사성도 여러 차례 역임했다. 병인년(1806)에는 형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의 참관을 모두 섭렵했고 경오년(1810)에는 경기도관찰사 재임 중에 삼정의 폐단을 거론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축년(1817)에는 충청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이는 권상신의 조부 권도와 증조부 權僕이 지낸 바 있는 자리로서, 그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미 있는 치적을 남겼다. 이 때 충청도에 큰 홍수가 나서 감영이 무너지고 다리가 떠나려갔는데 권상신은 녹봉을 회사하여 제반 시설을 수리하도록 했다. 공교롭게도 정원용은 그 2년 후 해당 지역에 慰諭使로서 파견된 적이 있는데, 홍수가 났음에도 다리와 제방이 튼튼히 보수되어 피해가 적었던 것을 목도했다고 권상신의 묘지명에서 회상했다.<sup>12)</sup> 기묘년(1819)에 공조판서와 廣州유수를 지냈고 임오년(1822)에 예조판서 및 한성판윤을 역임하는 등 관력이 지속되던 중, 대사헌으로 있던 계미년(1823)에는 그가 올린 상소문이 국왕의 뜻을 거스르는 바람에 영변에서 3개월의 짧은 귀양살이를 했다. 그러나 사면된 즉시 우참찬, 都憲, 사직서제조 등으로 관력을 이어나갔으며, 그런 가운데 갑신년(1824)에 동지정사로 차출되어 연경을 향해 떠났다가

- 
- 10) 한편 권상신이 남포현감으로 부임했을 무렵 尹行恧(1762~1801)은 그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碩齋稿』 卷7의 「答權綱好」가 그것이다.
- 11) 『조선왕조실록』 순조 3년 계해(1803) 10월 21일조에 “冬至正使 閔台燾·부사 權僕, 서장관 徐長輔를 소견하였는데, 사폐한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한편 이 일행을 따라간 李海應이 당시 노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薊山紀程』이라는 유명한 여행록이다. 이 책 가운데 권상신은 ‘綱菴’으로 지칭되고 있다. 한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해당 조목 등 현재 통용되는 인물기록에 권상신이 1803년에 남공철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 12) 公祖曾兩世按本省有遺愛, 公以桐鄉之思強赴, 治理繼先美, 秋大雨水濫漲, 布政門石橋圯, 屋廬漂, 公捐廩儲修治之, 役鉅而人不勞, 比之錢塘 白公堤. 越二年又大水, 余以慰諭使馳往公州, 公民之免沈墊者, 以年前修橋築堤也.(鄭元容, 『經山集』 卷17, 「禮曹判書贈右議政權公-常愼-墓誌銘」)

奉天府의 高橋堡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했으니 향년 66세였다.<sup>13)</sup> 그 이듬해(1825)에 비로소 조선으로 運樞되어 3월에 定山縣의 선산에 묻혔다.

이처럼 권상신의 공적 생애는 일찍부터 학업에 두각을 나타내어 30세 이래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거의 공백기 없이 관료에 있었으며 그 동안 승진을 거듭하여 요직을 두루 섭렵하는 등 관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권상신의 당세에서 출발하여 죽음으로부터 40년이 된 시점까지 그와 친인척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양상을 역시 홍직필, 정원용, 조두순의 언급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권상신의 전처 풍산홍씨(1759~1791)는 洪樂命(1722~1784)의 딸인데, 1남 1녀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중 아들 權敬履(1787~1810)는 延安 李曾愚(1811~1851)에게 출가한 1녀를 두고 요절했고, 딸은 해주 吳致愚(1789~?)에게 출가했다. 후처인 한양조씨(1776~1835)는 趙興源의 딸로서, 풍산 洪翰周(1798~1868)에게 출가한 1녀를 두었다. 측실에게서도 아들 權正履(1807~?)를 얻었는데 그 역시 적형과 마찬가지로 후사를 두지 못했다. 이에 권경리와 권정리의 후계자로 權思喆(1806~?)과 權思弼(1837~1908)이 입양되었으나 그 중 권사철은 또 후사를 두지 못해 權衡圭(1831~1918)를 입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권사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앞서 권상신 선대의 가계 구성을 살펴본 것에서와 유사하게, 권상신 자신의 혼인관계 및 그 자손에 해당하는 이들을 매개로 한 인척관계에서도 풍산홍씨, 해주

13) 권상신의 죽음은 그와 친분이 있었던 문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남겼다. 洪奭周(1774~1842)는 『淵泉集』 卷4의 「悲高橋，爲西漁權尙書常愼作」에서 “寒聲忽驚夢，馬嘶高橋驛。永懷西漁丈，十載重泉閨。風流散文藻，笑談如夙昔”이라 하여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추모했고, 張混(1759~1828) 역시 『而已集』 卷8에 「西漁權尙書望七之齡，以冬至正使赴燕，未及山海關百餘里，十一月十六日，卒於高橋堡，翼歲乙酉二月初二日，返櫬于玄湖故居，聞而悲咽，作一詩遙寫賞音之慟，用巽歲陪飲韻」이라는 긴 제목의 시를 남겼다. 이 두 인물의 면면은, 권상신의 교유가 대체로 경화세족에 속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詩作을 매개로 한 관계에서는 하층의 문인들에게까지 이어져 있다고 추측케 하는 단서가 된다. 한편 장혼은 권상신이 11월 16일에 사망했다고 적었지만 공식적인 묘지명 등에는 12월 16일로 되어 있는바, 誤記로 판단된다.

오씨, 한양조씨, 연안이씨 등 유력 가문들과의 밀접한 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권상신의 첫째 사위인 오치우는 吳淵常(1765~1821)의 아들이자 吳載純(1727~1792)의 손자이고, 둘째 사위인 홍한주는 洪稷謨(1770~1834)의 아들이자 홍낙명의 손자이다. 孫婿인 이증우는 李麟秀(1789~?)의 아들이자 李肇源(1758~1832)의 손자인바(즉, 李敏輔의 증손자), 당대의 현달한 관료가문의 계보가 나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된다. 게다가 위에 든 인물 가운데 홍낙명은 본디 권상신의 장인이므로 그 손자 홍한주는 사위이기에 앞서 처조카인 셈이니 그야말로 겹겹이 이어진 사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한 홍직필과 정원용, 조두순은 저마다 재상급의 고관을 역임하거나 학문으로 일가를 이루어 사회적 인정을 받은 유력한 관료문인으로서, 직속선배인 권상신의 공적 생애를 존중하는 태도로 기술하고 있거니와, 그들 역시 각각 권상신과 사적인 인간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자신의 글에서 빠짐없이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홍직필은 자신이 유년시절부터 권상신의 知遇를 입었다는 것을 회상했고,<sup>15)</sup> 정원용은 권상신이 사행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다시 만나기가 쉬울까? 자네는 반드시 귀해질 테니 나의 뒤를 도와주게.”라는 작별 인사를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술회했으며,<sup>16)</sup> 조두순도 약관의 나이가 되기 전에 권상신의 “小東樓”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의 탈속한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했다.<sup>17)</sup> 이후의 논의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기실 권상신의 생애 관련 기록을 집필한 이들의 부친인 洪履簡(1753~1827)과 鄭東晩(1753~1822), 趙鎭翼(1762~?)

14) 이처럼 가문의 구성원이 혼인으로 겹겹이 연결된 경향은 권상신의 외사촌인 이유명(이정황의 손자)과의 관계에서도 발견된다. 이유명의 장인 金斗七(金長生의 8세손)은 권상신에게는 셋째 고모부가 된다.

15) 直弼自齠髻, 受知于公, 非直以世舊之好, 有不敢以癘病辭。(홍직필, 「判中樞 贈右議政權公墓碣銘」)

16) 昔公泛槎之行, 訪余道惜別情, 忽悽然曰: “重逢易乎? 君必貴, 須相我之後.” 余心異之, 常不能忘。(鄭元容, 「禮曹判書贈右議政權公-常愼-墓誌銘」)

17) 憶余未勝冠, 病處西湖, 拜公小東樓中, 左右圖書琴棋, 簾閣翛然無點塵. 公便衣野巾, 吟哦不自輟, 望之如雲漢人矣, 而於詩騷章程, 得公辟呬之詔者多矣, 由今思之, 豈易得來也哉!(趙斗淳, 「禮曹判書贈右議政權公-常愼-諡狀」)

등은 권상신의 교유관계에 포괄되는 인물들이며, 그들이 소속된 남양홍씨와 동래 정씨, 양주조씨 가문 역시 권상신의 집안과 친연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상신의 생애 기록에서 파악되는 그의 공적 이력이라든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는 19세기 조선의 관료가 이룰 수 있는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성공과, 그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법한 빈틈없는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구현한 전형적 예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점은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유만주와 김려, 심노승 등의 공적 생애와는 일견 대조적이다. 기계유씨인 유만주의 경우 권상신의 예에서 파악되는 혼맥의 네트워크에 포함될 만한 가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권상신과 사돈을 맺은 오연상은 유만주에게는 처남이 된다. 그렇지만 유만주 자신은 일생 독서인으로 지냈을 뿐 공적 영역에는 등장해 본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는 거의 망각된 존재에 가까우므로 권상신과는 처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또한 유만주의 이른 죽음으로 이들이 공유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고도) 이 둘이 긴밀한 교유를 유지했다고 말하려면 수긍할 만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송심씨인 심노승의 경우, 소속된 가문이라든가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는 유만주보다는 그래도 권상신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연안김씨인 김려의 경우, 적어도 혼맥으로는 권상신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유배지와 미관말직을 전전한 그 생애의 궤적도 권상신과 겹쳐질 여지가 희박하다. 따라서 이 주변적 문인들과 권상신이 모종의 공통점을 갖고 있고 교유관계로 이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상신의 생애와 관련해 사적인 방향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고, 권상신의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직접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 3. 『서어유고』의 편집 양상과 그 의미

『서어유고』는 총 5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의 시문집이다. 그 중 1~3책(모두 155

매) 까지는 詩가, 4~5책(모두 104매) 은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수로 보자면, 1책에 「懷人」 이하 「詠梅次胡澹菴八詠韻 八首」까지 시 119편, 2책에 「哭洪而壽-仁謨」 이하 「復步前韻」까지 시 171편, 3책에 「赴謫時次淵泉丈送別韻」 이하 「過伯顏洞麻姑嶺」까지 시 219편, 4책에는 「辭右副令疏 辛酉」이하 「崔七七傳 戊申」까지 산문 36편, 5책에는 「孝懿王后進香文 辛巳」 이하 「貞陵遊錄」까지 산문 18편이 있어, 도합 509편의 시와 54편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작품이 편차된 순서는, 문체별 분류 방식을 따르며 창작시기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시와 산문을 구분했으며, 산문의 경우 별도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체별 분류 방식에 따라 疏, 書, 序, 記, 傳, 祭文, 上樑文, 銘, 說, 贊 등의 순으로 나누어 작품을 나열했고 가능한 한 간지를 부기하여 작품의 창작연도를 밝혀 두고자 했다. 이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788년에 썼다고 표시되어 있는 「崔七七傳 戊申」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저자의 주요 교유인 물 중 한 사람인 南公轍(1760~1840)<sup>18)</sup>이 1815년에 스스로 간행한 『金陵集』에 수

18) 『서어유고』에도 남공철을 대상으로 쓴 글이 다수 기재되어 있거니와, 남공철의 문집에도 권상신을 언급한 대목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金陵集』 권23의 「太史成道卷墨刻」에서는 “나는 동기창의 필법을 몹시 좋아해 수십여 본을 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 탁본이고 진적을 본 것은 오직 권경호(=권상신) 집에 수장된 「취옹정기」 병풍밖에 없다. 이는 가장 득의한 글씨다”(余於書酷好董筆, 曾閱數十餘本, 大率多刻搨, 眞蹟則惟權景好家藏「醉翁亭記」屏風, 最是得意書也)라 하여 권상신이 소장한 동기창 친필의 병풍에 대해 부러움을 표했고, 같은 권의 「玄宰書醉翁亭記屏風眞蹟紙本」에서는 바로 그 동기창 친필본 병풍을 두고 “서화를 수장하는 방식으로는 卷軸만한 것이 없다. (...) 병풍의 상태로 두면 손상되거나 더럽혀지기 쉽고, 권축으로 두면 아껴 두고 간직하기에 몹시 편하기 때문이다. 또 병풍은 본디 서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 풍습은 전혀 그렇지 못해 권축은 천시하고 병풍을 귀중히 여겨, 종이에 풀을 발라 표구를 하고 구리로 장식해 해 추우면 바람을 막고 더우면 버려둔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서화가 있는지 알아주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들이 먹으로 점을 찍고 손톱자국을 내도록 내버려둔다. 어찌 탄식이 나지 않겠는가. 하루는 벗 권경호와 함께 한 일흥당의 연회에서 이 병풍을 펼쳐 두었기에 곧 병풍과 권축의 우열이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상함과 비속함에 대해 이야기가 미처 붓을 달려 이렇게 적는다”(凡蓄書畫屏障, 不如軸卷, (...) 蓋爲屏障, 易見汙傷, 而軸卷甚便藏惜故也. 且屏風初非爲書畫而作, (...) 東俗却不然, 賤卷軸而貴屏障, 紙糊銅飾, 寒則禦風, 暑則棄置, 不復知其中有許多法書名畫, 而徒任小兒輩墨點而爪痕之也.

록된 「崔七七傳」과 제목은 물론 내용의 字句까지도 똑같은 작품이다. 이는 저자 사후에 그 유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유인물의 글이 잘못 혼입된 결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편집상의 실수를 통해 『서어유고』의 편집자가 저자 생전의 교유를 적극적으로 계승한 인물은 아니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sup>19)</sup>

시의 경우는 대체로 창작시기에 따라 편차되었는데, 1책의 맨 앞장에 시집 전체의 장별 소제목에 해당하는 대략적 목차를 기재한 附箋紙가 붙어 있고, 그 목차가 생애의 중요한 국면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그런 의도가 확인된다. 이 부전지에는 “西漁遺稿詩集”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7개의 소제목이 나열되어 있다.

- ① 日紅堂 初集 續集
- ② 玄湖 再集
- ③ 汶湖 三集 附錦城集
- ④ 紫閣 四集 附南城集 田社集
- ⑤ 藥山 五集
- ⑥ 鷗湖 六集
- ⑦ 星槎 七集 (일련번호는 인용자 첨부)

우선 첫째 소제목인 “日紅堂”은 권상신이 젊은 시절 사용한 당호로서, 水閣橋 근처에 있던 그의 자택 서재를 가리킨다. 구김살 없이 자란 유복한 사대부가의 자제가 보여줄 법한 밝고 낙관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당호가 아닌가 한다. 그는 1783년에 쓴 「日紅堂記」에서 스스로를 “日紅堂主人”으로 칭하며 “붉은 해가 동쪽에 떠오르면, 이부자리 떨치고 일어나 몸가짐을 맑고 단정히 하네. 붉은 해가 그의 방을

---

寧不作咄! 一日, 與友人權景好宴坐日紅堂中, 展此屏, 仍語到屏軸優劣莖, 東雅俗, 馳筆識此)라 하여 그렇게 귀중한 동기창 친필을 적절히 보관하지 못하는 권상신의 안목을 은근히 알아보는 언급을 했다. 이러한 남공철의 연사를 통해, 희귀한 서화를 소장하고 있는 권상신의 收藏家로서의 면모를 가늠할 수 있을 뿐더러, 당시 서화고동에 심취한 경화세족 문인들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다.

19)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남공철 문집 소재 「최칠칠전」에는 표시되지 않은 창작연도가 본서 소재의 글에 유독 표기되어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추노니, 그 안에 있는 사람, 읊조리는 소리 洋洋하여라”<sup>20)</sup> 라며 그 이름에 의미부여를 한 적이 있다.

둘째 소재목인 “玄湖”는, 본디 마포 혹은 흑석동 근방의 한강을 가리키는 지명인데, 여기서는 마포 인근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조두순의 언급이 참조된다. 조두순은 “三湖 洗心亭에서 玄石의 小東樓로 거처를 옮긴지 2년이 되었다”고 하며 31년 전 그 장소에 관련된 기억을 돌이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소동루는 당시 권상신의 소유였다고 했다. 조두순은 18세 되던 계유년(1813)에 脾病을 치료하기 위해 소동루의 서쪽 근방에 觀水樓라는 집을 전세로 얻어 몇 달 거처한 적이 있으며, 당시 권상신은 소동루에서 歌妓들을 데리고 있으며 많은 시와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어 그 운치가 한때 가장 빼어났다는 것이다.<sup>21)</sup> 요컨대 “현호”는 1813년을 전후한 시기 권상신이 마포 근처의 한강변에 위치한 소동루라는 집에 거처할 때 쓴 시들을 모은 小集인 것이다.

다음으로 “汶湖”는 그 조부인 권도의 문집 표제로 제시되기도 한 만큼, 권상신의 가문이 뿌리를 둔 향리와 관련된다. 해당 지역은 충청도 韓山으로 추정되는데, 홍직필의 언급에 따르면 권상신은 1810년 경기도관찰사에 임명된 이후의 어느 시점에 잠깐 한산에 낙향해 있었다고 한다. 또한 3책 소재의 「汶湖雜詠」 18수 연작을 보면 “현호에선 언제나 낚시했거니 문호에선 다시 배 매어 두리”(玄石常垂釣, 汶湖更繫船)라 하여 이 소집에 수습된 작품들을 쓴 시기가 현호 시기에 후속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14년 이래 1817년 초까지 그는 사간원 대사간에 재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호에 거처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1817년 2월에는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소집에 첨부된 “錦城集”도 제시한 바의 지명이 충청도 錦山과 관련되므로, 그 이름에 지은 작품을 모은 것으

20) 日之紅矣, 維其東矣, 振衾而起, 清肅其躬. 日之紅矣, 維其堂矣, 人在其中, 誦聲洋洋.(權常愼, 「日紅堂記」)

21) “吾宗經始昔何年, 儻易西漁尙可傳, 病飲江流隣屋小, 韶齡今見雪盈顛. 族大父判書榮國氏, 始建此樓, 余年十八歲癸酉, 以脾病爲飲江心, 僦此樓西邊, 所謂觀水樓, 留數月. 時權西漁尙書常愼氏, 爲小東主人, 所蓄聲妓詩畫韻絕一時, 今爲三十有一年”(趙斗淳, 『心庵遺稿』卷7, 「自三湖洗心亭, 移卜玄石之小東樓, 今二年矣, 而前冬信宿殆忿忿, 癸卯五月, 得更來錄雜識」)

로 보인다.

1819년에 권상신은 공조판서가 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넷째 소제목인 “紫閣”은 서울의 남산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그의 거처가 이곳이었음을 알려준다.<sup>22)</sup> 그 다음에 첨부된 “南城集”도 권상신의 거처가 남촌에 있었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田社集”은 권상신을 주축으로 한 모종의 詩會에서 쓴 작품을 수습한 것이다. 이 모임의 중심 장소는 권상신의 園庭인 “寄園”이었던 듯한데, “寄園田舍는 풍경이 본디 몹시 빼어난 데다, 紫閣峰에 흰 눈이 쌓이니 경치가 말할 수 없이 더욱 아름답다. (...) 西漁가 이 정원을 회사하여 우리 네 사람(조정철, 김이양, 권상신, 심상규-인용자)이 함께 寄居하도록 약속하였고 주인과 손님의 구별 따위는 하지 않았다”<sup>23)</sup>라고 한 심상규의 말이 참조된다.

다섯째 소제목인 “藥山”은 평안도 寧邊府의 한 지명이다. 권상신은 사헌부 대사헌으로 있던 1823년 1월에 상소를 올려 嚴燾와 權敦仁을 귀양 보낸 일이 부당하다고 한바, 이로 인해 곧장 유배형을 받게 되어 약 3개월가량 영변부에 머물렀다. 약산집은 이 시기 동안 쓴 작품들이다. 그러나 영변부의 지방관인 朴台壽 등이 그를 후대한 것을 보면 이 짧은 유배생활은 쓰라린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던 듯하다. 여기 해당되는 시 109편 가운데 33편이 유배객의 처지에서 쓴 것이고, 「聞恩宥喜賦」이하 70여 편의 시는 모두 유배에서 풀려난 것에 안도하며 서울로 돌아가기에 앞서 묘향산이라든가 대동강 등 주변의 명승을 한가롭게 노닌 내용이다.

서울로 돌아온 후 권상신은 남산이 아닌 鴨鷗亭 근처의 한강변에 거처를 정했다. 여섯째 소제목인 “鷗湖”는 바로 그곳을 가리킨다. 『서어유고』 3책에 「將歸鷗亭, 寄趙戚叔主人公」이라는 시가 있어 이곳의 원래 주인이 조정철임을 알 수 있다.<sup>24)</sup>

22) 申緯(1769~1847)는 자신의 泥峴(진고개) 別第에서 권상신과 만나기로 약속한 일을 말하며, 그곳이 자신의 본가와 권상신의 山居 사이 딱 절반 되는 지점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권상신이 남산 가까이 살았다는 근거가 된다. (『경수당전고』 12책, 「權西漁判院-常愼-期余泥峴別第, 此距西漁山居與弊廬, 恰爲半道也. 斗室太史亦來小集, 時西漁使燕期近, 賦此爲別」)

23) “寄園田舍, 境固殊勝, 紫峰白雪, 景又絕佳. (...) 西漁捨此園, 約四人同其所寄, 無復賓主之別”(沈象奎, 『斗室存稿』 卷3 「會南麓寄園」)

마지막으로 “星槎”라는 소재목은 권상신이 1824년 冬至正使로 파견되어 도중에 갑작스레 사망하기 직전까지 쓴 작품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3책의 「次竹磔鄭尙書-晚錫-臚行韻 兼叙留別之懷」 이하 「過伯顏洞麻姑嶺」까지 18편 정도의 시가 여기 해당되는데, 그 가운데 ‘明愛’라는 여성과 관련된 시 한 편이 눈에 띈다. 중년 시절 잠시 보았던 기녀를 노년에 다시 만난 감회를 5언 절구로 짙막하게 쓴 이 시에는 그 사이의 세월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대단히 긴 제목이 다음과 같이 붙어 있다.

「지난 계해년(1803) 겨울, 나는 副使로 연경에 갔었다. 그때 錦繡子 明愛는 나이 어린 詩妓로서 평양 감영의 澄清閣에서 나와 만났다. 그 때 송별시를 지어 보내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읽어 보고 기이하다고 여겨 사흘간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금수자는 분잡하고 화려한 생활에 염증을 느껴 妓籍에서 이름을 지우고 중적을 감추었다. 소식이 막연하여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종형제인 叔道 沈應奎<sup>25)</sup>가 재령의 지방관으로 나갔는데 금수자는 그 고을 감천리 청수촌에 숨어 있는 지 이미 몇 년이었다. 고을 수령이 나와 종형제라는 말을 듣고 그 인연으로 서신을 통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正使로서 또 연경에 가게 되었는데, 금수자가 심응규를 따라 와 봉산 동선관에서 만나보았다. 등불 아래 마주보며 지칠 줄 모르고 지난 일들을 얘기하노라니 마치 어제 새벽의 일인 듯했다. 그런데 벌써 22년이 훌쩍 지나가버린 것이다. 저쪽도 이쪽도 쭈글쭈글한 피부에 백발이 성성하여 예전 모습이 아니었으니 나도 모르게 서글프고 마음이 아팠다. 수레의 뒤에 태우고 함께 黃岡으로 가서 그 시절 계해년에 그가 쓴 송별시의 운에 따라 지은 시를 부채에 써서 준다」<sup>26)</sup>

24) 한편 심상규는 “동호의 압구정을 서어가 大陵(조정철의 호-인용자)에게 바야흐로 빌려서 거처하고 있다”(東湖之狎鷗亭, 西漁方借於大陵而居之, 『斗室存稿』 卷3 「會南麓寄園」)고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앞서 권상신이 “기원”을 회사하여 詩會를 가진 때와 같은 시점이다. 이 모임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여러 채의 별업을 공유에 가깝게 소유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여겨진다.

25) 沈應奎는 심상규의 아우이므로 마찬가지로 권상신에게 고종사촌이 된다.

26) 往昔癸亥冬, 余以副行人赴燕, 伊時錦繡子 明愛, 以少年詩妓, 遇余於箕營澄清閣中, 作詩送別. 余覽而奇之, 仍結三宿之緣. 其後數年, 錦繡子厭紛華, 除名妓籍, 斂影晦迹, 聲息漠然, 不知隱在何處, 存沒之如何. 沈從叔道-應奎-出宰載嶺, 錦繡子隱於本邑甘泉里 清水村者, 已有年, 聞邑宰與我爲從, 因緣通書信, 今余以上行人, 又赴燕, 錦繡子隨沈從後, 來見於鳳山 洞仙館, 燈下相對, 麴麴說昔年事, 宛如隔晨而倏已卅二星霜, 彼此鷄皮鶴髮, 非復是舊日容, 自不覺愀然傷心. 載後車偕之黃岡, 用其癸亥送別韻, 題扇以贈.

권상신은 황해도 황강에서 명애를 만난 후 얼마 있지 않아 압록강을 건너 요동을 향했고, 奉天府 高橋堡에서 유숙하던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음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위의 긴 제목은 별도의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sup>27)</sup> 그의 마지막 육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어유고』 1책 맨 앞장에 첨부된 쪽지는 시 작품을 저자의 생애와 관련하여 몇 개의 국면으로 분류하고, 연대기순으로 배열하고자 한 편집자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집의 현상태는, 그런 분류와 배열의 의도를 엄밀하게 구현한 결과물은 아니다.

우선 이 책은 권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작품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권수제 등의 형식으로 소재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3책의 첫머리 및 28번째 장에 각각 “藥山草”와 “鷗亭草”라 하여 “藥山 五集”과 “鷗湖 六集”에 상응하는 소재목을 제시하고, 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의 시들을 그 이하에 기재해 두었다. 이에 이 두 부분은 편집자의 계획과 의도에 따른 편차를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기타 5개의 소재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소재목을 미처 제시하지 않은 채, 재검토를 거칠 요량으로 가능한 한 연대기순에 따라 저자의 모든 시들을 수습하여 나열해 둔 것이다.

이 문집은 그런 재검토의 흔적 역시 담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籤紙의 형태로 나타난다. ‘日’, ‘亥’, ‘汶’, ‘紫’, ‘星’ 등 각각의 소재목을 약칭하는 글자가 쓰인 첩지를 시의 제목 상단에 하나하나 붙여 소재목에 따른 분류를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첩지에서 제시한 정보에 따르자면 몇 개의 작품은 기존의 순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편차해야 한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규장각 소장본 『서어유고』는 보다 완성된 형태의 문집으로 편집하거나 혹은 공식적인 간행본의 저본으로 확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제작

27) 홍직필이 쓴 묘갈명에 따르자면 권상신은 임종할 때 죽음을 애달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당시 권상신의 庶弟 權濬이 곁에 있었는데, 권상신은 그를 두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반함을 해 줄 것”이라 한 적이 있었고, 과연 그렇게 되었기에 역시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臨終無怛化意, 時公以庶弟隨行, 曰: “是爲吾飯舍者.”其言果誠[驗의 오기인 듯]亦可異焉)

된 것으로, 저자의 모든 작품을 가능한 한 충실히 수렴해 놓은 편집본에 가까울 듯하다.

편집자는 최선을 다해 모든 작품의 창작연도를 고증하여 가능한 한 부기하고 그에 따라 작품을 정연하게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칠철전」이 잘못 편집되어 들어간 예에서도 짐작되듯 그는 저자의 생애나 교유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처지의 인물로서 이 작업의 수행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졌던 듯하다. 첨언하자면 편집과 관련된 사항을 부기한 다양한 첨지 중에는 작품 제목에 자호나 친인척 관계만으로 언급된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므로 나중에 찾아 보고 부기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종종 눈에 띈다.<sup>28)</sup>

그렇다면 『서어유고』의 편집을 주관한 인물은 누구일까. 필자로서는 권상신의 아들 權正履가 유력하다고 본다. 그는 『서어유고』 안에서는 그다지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권상신 사후 그가 기억되도록 하는 일을 도맡은 유일한 인물로 나타난다. 권상신과 관련된 묘도문자를 쓴 홍직필과 정원용, 조두순 등은 그의 사후 20년 혹은 40년이 지난 시점에 권정리의 의뢰를 받아 그 부친의 생애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되었다고 저마다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직필과 조두순은 권상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당시의 상층 사대부 사회에 주었던 충격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글을 시작했고, 그런 일이 있는 지 20년 혹은 4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시점에 ‘庶子’가 와서 그 부친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게 된 상황을 곧바로 덧붙여서 망자에 대해 애석해하는 심정을 은근히 표현했다. 여기서 포착되는 몰락의 징후는 그 뒤로 이어지는 권상신의 화려한 이력이나 당대의 名家를 포괄한 대단한 인척관계에 대한 언급과 대조를 이루며 그가 사후 적절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데 대한 연민의 감정조차 자아내게 된다.

이런 맥락에는 명예와 부를 모두 누린 듯 했지만 嫡長子 權敬履가 早歲한 후 자신의 遺業을 마땅히 의탁할 곳이 없게 된 권상신 생애의 어두운 국면과, 현달한 가문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서출로서 어느 정도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던 중 부친

28) 이를테면 1책 소개 「隨正陽戚兄泛舟同遊, 是日尹進如來, 進如正陽兄婿也」라는 시의 상단에는 정양 척형과 윤진여가 누구인지 찾아봐야 한다는 언급을 담은 첨지가 붙어 있다.

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고, 그 이후 여러 모로 제한된 조건 하에 선친을 현창하는 책임을 맡아야 했던 권정리의 상황이 개입해 있다고 보인다.

#### 4. 『서어유고』에 나타난 문인 권상신의 경향성

정원용은 권상신에 대한 묘지명의 서두를 지나간 正祖 시기의 文風에 대한 칭송으로 시작했다. 그는 국왕이 禮樂을 다스리고 文教를 펼치는 가운데 선비들이 절차탁마하여, 경전에 정통하고 옛것에 해박한 문풍을 구현하게 되었다 하며, 그 가운데 文藝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 인재로 金祖淳(1765~1832)과 남공철, 심상규와 권상신을 꼽았다. 이어서 그는 나중에 권상신을 제외한 세 사람만이 詞壇의 모범이자 맹주가 되고, 권상신은 비록 고관을 역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文翰에 종사하는 관직은 아니었기에 그가 스스로의 재능을 합당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sup>29)</sup> 권상신이 비록 문단에 지대한 영향력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문예적 재능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조순 등과 동렬에 놓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권상신의 삶과 생애를 담은 『서어유고』는 18, 19세기 조선 상류층 사회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 것이며, 문인 권상신의 성취를 포괄한 1차 저술로서 간과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 기대된다. 이 장에서는 『서어유고』의 내용을 직접 검토, 분석하는 한편, 그와 조응하는 주변의 기록들을 참조하여 권상신이 문인으로서 어떤 색채를 띤 인물인지 조명해 보고자 한다.

29) 我正宗修明禮樂，煥敷文教，士爭淬礪琢磨，以通經博古相尚。時金楓皇南思穎，沈斗室，權西漁諸公，俱芳齡長文藝，聲聞輝動士林，其將鼓吹典經，繡繪皇猷，以鳴國家之盛，而三公聯武主詞壇，獨西漁公由蔭籍晏擢第，秩六卿貴而未獲施金石典策之用，爲士者惜之。然指津筏於學海，導軌範於籍園，如川雲嶺月之爲後生摸畫者，其美名亦豈多讓乎人哉！

## 1) 문예를 통한 교유와 여성시인에 대한 관심

홍직필은 권상신이 友道에 돈독하여 벗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벗에게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했으며 궁달 및 귀천에 상관없는 벗 사귀를 했기에 벗들이 그를 從遊하기를 즐거워했다는 점을 그의 사적 면모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한 바 있다.<sup>30)</sup> 이는 기존에 권상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글인 「南臯春約」이나 「隱巖雅集圖贊」 등이 그 자신과 더 나아가 18세기 후반 서울 사대부가 자체들의 교유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sup>31)</sup> 호응하기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점 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본격적인 작품세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권상신 문집의 대략적 경향을 검토해 보면, 그의 글쓰기가 산문보다는 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시 가운데 자신의 교유 양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뚜렷이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서어유고』에 수록된 작품의 제목만을 검토해 보아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앞서 권상신이 고교보에서 사망하기 얼마 전에 쓴 시에서도 알 수 있거니와, 그의 시 가운데는 것처럼 본편보다 긴 제목을 붙여 해당 작품을 쓰게 된 상황을 소상히 밝힌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서술적인 제목을 붙인 예가 빈번하여 그로써 작품 창작과 관련한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기가 좋은 편이다.

그런데 총 509편의 시 제목을 검토해 보면, 그 가운데 200편에 육박하는 작품이 전적으로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그 시를 쓴 계기가 된 인물의 자호나 성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권상신의 교유관계라

30) 崇篤友道，重然諾喜施與，不以窮達貴賤而貳視焉，以故人皆樂從而遊，朋樽日適，戶屢恒滿，然或有干以非義者，不以親愛而寬假，襟度虛曠。

31) 「南臯春約」과 「隱巖雅集圖贊」은 18세기 후반 서울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어울렸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특히 이 글에는 모임 참가자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권상신의 교유인물은 물론 이른바 경화세족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추정하는 주요 자료로 간주된 바 있다. 「남고춘약」에는 金叔道(金相任), 任彦道(任履周), 沈士執(沈允之), 俞伯翠(俞晚柱), 金季容(金相休), 李時中(李度中), 李士仁(미상) 등이, 「은암아집도찬」에는 이한진, 유사모, 김상임, 김이영(=김이양), 김상휴, 김희순, 이명연, 권선(=권상신), 임이주, 이도중, 심상규, 유환경, 김홍도 등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든가 그를 중심으로 한 ‘경화세족’의 교유 양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어유고』 소재 시와 산문의 제목을 모두 검토하고 그 가운데 언급된 권상신의 교유인물을 추출하여, 그로부터 의미 있는 경향성을 발견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서어유고』 소재의 작품 제목에서 3회 이상 거론된 교유인물이다. 이들을 권상신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긴 교유인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본관·성명	자호	특이사항	본관·성명	자호	특이사항
풍천 任履周	彥道	任邁 아들	안동 金履載	公厚, 江右	金履喬 아우
광산 金相任	叔道	金茂澤 아들	풍양 趙哲永	原明, 春樹樓	趙鎮憲 아들
풍산 洪仁謨	而壽	洪奭周 부친	청송 沈象奎	穉教, 斗室	고종사촌
안동 金履陽	命汝, 茗泉	戚兄	의령 南公轍	元平, 思穎	우의정
연안 李堉	而中	金晚根 사위	풍산 洪翰周	憲卿, 海翁	사위, 처조카
원주 元在明	芝汀, 孺良	元景夏 손자	안동 金祖淳	士源, 楓阜	순조의 장인
남양 洪履簡	元禮, 竹塢	洪直弼 부친	연안 李肇源	景混, 玉壺	李曾愚 조부
해주 吳淵常	士默, 博園	吳致愚 부친	풍양 趙鍾永	元卿, 北海	이조판서
안동 金履喬	公世, 竹里	우의정	풍산 洪義浩	養仲, 澹寧	공조판서
양주 趙貞喆	成卿, 靜軒	戚叔	吉氏	照海亭	영변 집주인
芙蓉	秋水	김이양 첩	成晚鎭	蘿山	

우선, 앞서 권상신의 생애와 가계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미 거론된 인물군이 주요 교유인물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홍이간, 오연상, 조정철, 심상규, 남공철, 홍한주, 김조순, 이조원 등이 거기 해당된다. 이와 같은 인물군의 존재는 그의 교유가 역시 친인척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데 대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金相任, 金履陽, 金履喬, 金履載, 李堉, 趙哲永, 趙鍾永, 洪仁謨, 洪義浩,

任履周 등 처음 등장하지만 먼저 제시된 인물군과 가문 차원에서 연결되며, 따라서 결국에는 동류로 묶을 수 있는 인물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광산김씨와 안동김씨, 연안이씨, 풍양조씨, 풍산홍씨 등 당대의 명가에 해당하는 가문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고관대작을 역임한 인물들이기도 하므로, 권상신의 교유 양상이 구현하는 경화세족적 면모를 확고히 할 만한 자료가 된다.

위의 두 인물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吉氏와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成晩鎭, 그리고 芙蓉이라는 詩妓다. 길씨는 권상신이 영변부에서 3개월가량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숙소를 제공해 준 이고, 성만진은, 李晩用(1792~1863)이 그를 두고 “蘿山 成丈”이라 칭한 것을<sup>32)</sup> 보면 中庶 계층에 해당되는 인물로 추정된다. 부용은 金雲楚<sup>33)</sup>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기생 신분의 여성 시인이다.

한편, 서두에 제시한 주변부 문인들과의 교유문제와 관련하여, 유만주나 심노승, 김려 등은 권상신이 자주 언급한 인물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바, 이로써 권상신의 교유관계에서 이들이 중심부에 놓여 있지는 않다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

그렇긴 하나, 위와 같은 표피적인 분류는 권상신의 진정한 벗이 누구였는지, 벗을 대하는 그의 내면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많지 않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몇몇 인물을 들어, 논의를 조금 심화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 든 이들 가운데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면서 권상신의 교유인물로 기존에 언급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金相任(1753~1808)과 任履周(1761~1808) 두 사람이다. 이들은 「남고춘약」에 기록된 1784년 3월 25일의 봄놀이 모임과, 「정릉유록」에 기록된 1784년 윤3월 1일의 진달래 꽃놀이의 참석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거론된 바 있다.

이 두 사람의 또렷한 존재감은, 권상신과 유만주가 그다지 친밀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근거도 되어 준다. 유만주 역시 위의 두 모임에 참여하였음에도,<sup>34)</sup> 권상신

32) 이만용의 『동변집』 권1에 「蘿山成丈-晩鎭-直中, 以一詩見寄, 故和呈」이라는 시가 있다.

33) 김운초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려추, 「한·중 기녀시인 金雲楚와 柳如是 비교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등이 참조된다.

은 자신의 문집 안에 그를 대상으로 한 어떤 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상임 및 임이주와 관련된 『서어유고』 소재 작품들의 제목을 보면 「任彦道雪詩軸序」(1783), 「任彦道-履周-寄書約東門賞柳, 以一絕答之」, 「與金叔道任彦道東門賞柳」, 「和金叔道東門賞柳韻」 등 함께 계절을 즐기며 시를 쓰는 등 아취 있는 사귀를 한 데 대한 기록이 가장 많고, 이 두 사람이 권상신에 앞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추모하며 「挽任參奉-履周」, 「金叔道-相任-挽」 등 輓詩를 빠뜨리지 않았으며, 「夢與金叔道相遇若在山水間, 覺後愴甚, 賦一絕. 叔道金剛舊伴也」라 하여 저세상으로 간 벗을 꿈속에 만나 슬퍼하고 생전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상임과 임이주는 권상신에게 소중한 벗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권상신이 누구보다 가장 마음을 기울였던 이는 金履陽(1755~1845)으로 보인다. 일단 그를 대상으로 쓴 작품이 일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권상신은 영변부에서 짧은 유배생활이 끝나고 근방을 유람하던 중 다음과 같은 긴 제목의 시를 썼다.

「開平 四絕亭에 올라 난간에 기대 사방을 돌아보니 산은 나직하고 강물은 길게 번 어 아득하고 툭 트이고 밝고 고운 모습이 마치 둥근 거울을 열어둔 듯하다. 우리 동방의 溪亭 중에서는 金水亭과 더불어 백중을 다룰 만한데 정자가 멀고 구석진 곳에 있어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몹시 애석하다. 이 정자에 올라 이 경치를 논평하며 기이하다 외치며 돌아갈 줄을 모를 이로는 오직 우리 연천옹(=김이양)이 있을 터이나 여기에 불러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홀로 앉아 서글피 시를 지어 심회를 부칠 따름이다」<sup>35)</sup>

이 제목에는 노년의 권상신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김이양이라는 점과 아울러 이 두 사람이 서로 유사한 심미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또

34) 유만주는 「남고춘약」과 「정릉유록」에 기록된 바의 모임에 함께 했으며 같은 날의 같은 경험을 자신의 일기 『흙영』에 대단히 상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권상신의 글과는 사뭇 다른 각도에서 쓰여, 두 사람의 글을 비교하면 무척 흥미롭다.

35) 「登開平四絕亭, 憑欄四顧, 山低水長, 遼廓明媚, 如開圓鏡, 我東溪亭, 惟金水可與伯仲, 亭在遐陬, 名沒不顯, 甚可惜也. 登此亭評此景而叫奇忘返者, 惟我淵泉翁, 其庶幾乎, 而未由招邀同席, 獨坐溯悵, 作詩以寓懷云耳」

럿이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교유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김이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19세기에 주로 활동한 여성 시인 김운초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앞서 성만진 등과 함께 언급된 부용이 바로 그다. 권상신은 그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언급을 남겼으니 「芙蓉池」라는 시에 붙인 다음의 ‘小叙’가 바로 그것이다.

연천 적형이 耆老所에 들어가던 날 부용이라는 이름의 詩妓가 스스로 와서 몸을 바치고는 그를 위해 키와 빗자루를 들고 집안일을 하는 첩이 되고자 하였다. 참으로 고래에 드문 기이한 일이다. 무릇 함께 노니는 이들 가운데 누군가 마땅히 축하하는 시를 써야 할 터이다. 이에 李靑蓮의 「涉江采芙蓉」擬古詩의 구절을 모으고 옛사람의 詩語를 여럿 모아 녹여 한 편을 이루어 「부용지」라는 제목을 붙였으니, 曹子桓의 詩題에 빗댄 것이다. 이로써 좋은 농담으로 삼아 한 번 환히 웃었으면 한다.<sup>36)</sup>

여기 언급된 부용이라는 詩妓가 바로 김운초다. 19세기에 흔치 않은 여성 시인으로, 50세 차이가 나는 김이양의 첩이 되어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했던 김운초는 한문학 연구자들에게 일찍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가 언제 김이양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는데<sup>37)</sup> 권상신의 언급에 따르면 그 시기는 김이양이 기로소에 들어가던 시점인 70세 무렵이자 권상신이 영변부에서 해배되어 서울로 돌아온 후인 1823년 후반 혹은 1824년으로 비정할 수 있게 된다.<sup>38)</sup>

36) 淵泉感兄, 入耆老之辰, 詩妓名芙蓉者, 自來呈臣, 願爲箕帚妾, 誠古來稀異之事也. 凡在同遊, 宜有賀詩, 乃集李靑蓮涉江采芙蓉擬古詩句, 且雜採古人詩語, 鎔成一篇, 命題曰芙蓉池, 作擬曹子桓詩題也, 用爲善謔, 以助一粲.(「芙蓉池」)

37) 박영민, 2005 「운초, 관기와 기생첩의 경계에 선 하위주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241-243면. 여기서는 운초와 김이양이 1831년에 정식으로 인연을 맺었고, 그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짧게는 6-7년간, 길게는 10-15년간 운초가 김이양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38) 한편 권상신은 이에 앞서 영변부에 머물며 쓴 시 「舟向闕波亭, 拈劉隨州七里灘韻」에서 “詩妓芙蓉在舟中拈韻作四絕以贈之”라 하여 詩妓 芙蓉을 처음 언급했고, 그 얼마 뒤에 쓴 「溟江別秋水」에서도 그를 다시 언급했다. ‘추수’는 부용의 다른 이름이다. 이로써 보았을 때, 권상신은 김운초가 김이양을 찾아가기에 앞서, 평양기생으로 있던 그를 만나 시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때 권상신이 부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앞서 김상임이나 임이주의 문집이 별도로 전하고 있지 않은 탓에, 권상신을 포함한 세 사람의 교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접근이 어려운 반면, 김이양은 그 문집이 남아 있어 상호 참조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권상신이 김이양의 첩 김운초를 ‘詩妓’로 칭하며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김이양은 권상신이 죽은 후 명애를 찾아가 벗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고 기억하고자 했다.<sup>39)</sup> 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나의 벗 서어 권상서는 풍류를 본디 좋아하고, 더욱이 화장하는 여인 가운데 글솜씨가 빼어난 이를 자나 깨나 그리워했는데, 때양 그런 비슷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계해년(1803) 봄 부사로 연경에서 돌아올 때, 평양 기생 명애(호는 白雪樓)가 쓴 이별시로 “변방 구름 사이 달 밝은 밤에 기러기 소리 어찌 저리 우짖나”<sup>40)</sup> 하는 그 구절이 낭송되어 전해지는 것을 듣고 몹시 정취가 있어 범상치 않다고 일컬었다. 그 20여년 뒤 권상서는 다시 연경에 사행을 갔다가 요양에서 세상을 떠나 운구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관서 기생 가운데 공을 가까이서 모셨던 이들이 여럿이었으나 그 오는 길에 서러이 통곡하며 전송한 것은 유독 명애 한 사람이었다. 나는 예전에 대동강을 지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롭게 여기며 그들이 서로 느낀 감정이 깊었으며, 그것은 煙花의 풍류를 넘어서는 것이었나, 하고 탄식했다.<sup>41)</sup>

으로 보아 김운초와 김이양은 그때까지 특별히 눈에 띄는 인연을 맺은 사이는 아니었던 듯하다.

- 39) 이 시점은 권상신이 죽고 10년 이상 지난 때일 가능성이 높다. 김이양은 명애와 관련하여 3편의 시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어지는 작품의 제목이 「丙申開歲後三日，淵泉老子使酌酒者倩書」라 하여 1836년작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40) 한편 김경선의 『燕轅直指』 「出疆錄」, 임진년(1832) 11월 3일조에는 “呂妓仙蘭, 年二十七, 有詩名, 嘗送正使權判書常愼 赴燕詩曰: ‘去去平安去, 長程萬里多. 塞雲明月夜, 孤叫雁聲何?’ 權台行到高橋堡, 病歿, 人以爲詩讖. 蓋高橋與孤叫, 音相似也”라 하여 이 시가 순안부 기생 선란의 작품이며 권상신의 두 번째 사행 때 그가 죽게 될 징조를 보인 시참이라 말하고 있다. 어떤 언급이 맞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김경선 쪽이 소문을 기록한 것으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말이 아닐까 한다. 다만 권상신이 죽고 8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에 대해 소문이 무성했던 상황을 김경선의 전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41) 吾友西漁 權尙書, 風流自喜, 又於粉黛中藻華秀出者, 有寤寐之思, 而常恨未得其彷彿焉. 癸亥春, 以副价自燕返, 誦傳溟城妓明愛, 號稱白雪樓者, 贈別詩“塞雲明月夜, 孤叫雁聲何”之句, 亟稱其情致不凡. 後二十餘年, 尙書重使燕, 卒于遼陽以櫬返, 關西妓暱侍公者衆, 而要路慟哭

김이양은 이후 뜻밖에 명애의 거처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보았는데, 비록 그의 머리칼이며 치아, 옷차림은 이미 시골 노파가 다 되어버렸지만 한가로이 앉아 평생 일을 낭랑히 얘기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다. 또 명애는 상자에 간직해 두었던 권상신의 답시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갑신년(1824) 연경에 가는 길에 써서 보내준 것으로, 전후의 일들을 빠짐없이 적어 둔 수백여 자에 이르는 서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sup>42)</sup> 김이양은 그 글이 평소 붓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쓴 것과는 달리 몹시 진지하게 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벗의 絶筆이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술회했다.<sup>43)</sup>

권상신과 김이양의 문집을 비교검토하다 보면, 그 두 저자가 문인으로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견 포착되는데, 그 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서가 바로 '시를 쓰는 여성'에 대한 이들의 태도이다. 이들은 대체로 “風流”라는 취향으로 묵일 만한 교유관계에 있는데, 그 풍류란 아름다움을 즐기고 시를 쓰는 것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놓인 것이 시를 쓰는 여성에 대한 우호적 감정 혹은 동경이 아닐까 싶다.<sup>44)</sup>

여성시인에 대한 관심이나 동경은 같은 시기 사대부 문인에게서 산견되는 경향이므로 유독 이 두 사람만의 특성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고위관료를 지낸바, 대부분 기생 신분으로 포괄되는 여성시인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고 자신의 취향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sup>45)</sup>

---

而送者, 獨明愛一人焉。于余嘗過滬上, 聞而義之, 亦嘆其相感者深, 別在煙花之外。(김이양, 『김이양문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2) 이 시는 앞서 권상신이 명애에게 써 준 긴 제목의 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不意其居乃在此方, 使余忽漫相見於崦嵫之景也。雖其髮齒衣裙, 已成里嫗, 而亦能閑坐說平生, 琅琅可喜。又出篋所藏西漁便回題贈者, 示之, 皆甲申赴燕時逆旅中所爲也。序述前後事, 甚悉, 又係之一絕, 數百餘字累累如貫珠, 不類其平日信筆隨意者。蓋便是絶筆, 自不覺涕淚霑襟。(김이양, 『김이양문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4) 공교롭게도 김이양의 필사본 문집 표제는 “風流集”이라 되어 있다.

45) 한편 申緯는 1841년에 쓴 「次韻景蕙女史詩」라는 시의 서문에서 金景蕙라는 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김경혜는 거문고를 잘 타고 바둑도 잘 두고 시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는데, 權西漁 尙書(=권상신)가 생전에 총애하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 2) 주변부 문인과의 교류와 후원자적 관계

기존 연구에서 권상신은 유만주, 김려, 심노승 등 중심부와는 거리를 두고 개성 있는 문학세계를 꾸려나갔던 문인들과의 교류관계를 통해 조명되었다. 그에 대해 ‘담정 그룹’의 일원이라 하는 정의가 그런 점을 잘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그것이 한쪽에서의 접근이었던 탓에 권상신의 주된 면모를 파악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서어유고』를 검토했고, 그가 경화세족이라는 당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특권층의 핵심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주변적 문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결론에 다가가고 있다. 이는 권상신의 주요 교류인물 가운데 위의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우선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서어유고』의 작품 제목에서 1회 혹은 2회 언급되는 데 그친 교류인물 혹은 동시대인을 검토함으로써 문인으로서 권상신의 다른 중요한 면모 하나를 더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성명	자호	특이사항	성명	자호	특이사항
李惟命	稚順	외사촌	權叢琬	祥琬(一名)	딸
李漢鎮	京山		兪漢炅	汝成, 著菴	兪漢雋 초명
李光稷	于野	譯官	金明淳	大叔	同甲友
權敬履	敬夫	아들	金綱	仲柔, 芭棲	연안김씨
金炳球	夔玉	甥姪	鄭蓍	德園, 伯友	贈兵曹判書
高胤亨		兪使	李之珩	楚白	執義

권서어가 죽은 후 여러 사람들 사이를 떠돌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어떤 武弁에게 거둬지는 처지가 되었다. 신위는 이 무렵 그가 지었다는 시 몇 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내용이었고, 그 가운데 “壺間貯月心俱白, 席上停雲眼欲青” 같은 구절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하며 그의 시에 차운한 시를 썼다.(「次韻景蕙女史詩 并序」, 金景蕙女史, 善琴棋工詩畫, 卽故權西漁尙書寵姬也. 自哭西漁, 流落人間, 復爲一武弁所收, 然非其志也. 近有人誦傳其詩數篇, 皆自悼之作, 而“壺間貯月心俱白, 席上停雲眼欲青”一句最佳, 爲題一詩, 以悲其不遇也) 이와 같은 신위의 후일담 역시 ‘시를 쓰는 여성’과의 관계가 권상신의 삶에서 주목할 국면이 된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해당 내용은 李裕元의 『林下筆記』에도 거의 비슷하게 인용되어 있으며, 다만 김경혜가 본디는 良家女였다는 언급이 더 있다.

洪範猷		아들의 친구	徐洛修		蔚山 使君
閔耆顯	子慶		李魯益	君受, 灘樵	
尹魯東	蓉西		李龍秀	紅館	李肇源 아들
趙鎮順	而厚	戚兄	李鶴秀	丹臯	李始源 아들
宋知謙	周卿		南履翼	公勵, 白石	權正履 장인
宋啓榮	公華		趙萬永	胤卿, 石厓	趙鎮寬 아들
趙鎮寬	裕叔, 柯汀	斗湖 거주	洪儀泳	正則, 良齋	
申緯	漢叟, 紫霞		俞漢寔	子範, 雲坡	
南周獻	文甫	南公輔 손자	金箕性	成汝, 頤吉軒	思悼世子 사위
李堯憲	季述, 笑笑翁		金龜	士精, 瀟庭	연안김씨
鄭彥仁	君博, 農塢		李顯綏	元履	
金尙城			權相翊	宜叔	宗人
沈魯崇	泰登, 孝田		李義玄	士昭	李運永 아들
華嶽		승려	海鵬		승려
朴台壽	三如	영변 지방관	權彥		庶弟
韓百衍		安州太守	楊州趙氏		외조모
吳致愚	景顔	사위	權晦榮		宗人
權文榮		宗人	鄭晚錫	成甫, 竹圃	
明愛	錦繡子	詩妓	沈應奎	叔道	沈象奎 아우
李鎮華		書狀官	洪樂命	子順, 新齋	장인
孝懿王后		進香文 씌	崔七七		작자고증요망

이상의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앞서 파악한 바와 같이, 권상신의 주요 교류인물에 해당하는 인물군에 포함되는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유명, 오치우, 金炳球(자형 김만근 아들), 金明淳, 李龍秀, 趙萬永, 沈應奎 등 여전히 많은 인물이 앞서 친인척 관계 안에서 언급된 인물이거나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는 인물로 분류된다.<sup>46)</sup>

46) 첨언하자면, 딸 권상완과 외조모 양주조씨, 앞서 언급된 명애, 효의왕후 등 다양한 연령대와 신분의 여성을 대상으로 쓴 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서 '시를 쓰는 여성'에 대한 권상신의 태도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성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애제문을 쓴다거나 직무상 왕실 여성을 위해 공식문서를 쓴 것은 일반적인 문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홉 살로 病死한 딸 권상완을 위해 쓴 글인 「女琬壙誌銘」(1786)은 그 제목에 딸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고, 그 내용에 딸의 이름에 얽힌 내력을 소상히 밝히

비로소 한 번 등장한 심노승은 이 범주의 가장자리에 포함되어야 할 듯하다. 심노승의 문집 『孝田散稿』에는 권상신에게 보낸 편지가 한 편 전하며, 또 그의 다른 저술인 『自著實記』에도 권상신과 관련한 기술이 하나 보인다.<sup>47)</sup> 유만주를 대상으로 쓴 글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역시 여기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그런 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부친 兪漢雋(1732~1811)을 위해 쓴 글이 하나 있을 뿐이다.<sup>48)</sup> 유만주의 『흙영』에는 권상신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의 언급을 통해 권상신의 집이 1년에 2천 섬의 수입을 거두는 부자이고 권상신 자신이 무척 활수한 사람이어서 한 번에 비용을 1만 푼이나 들여 연회를 열고 벋들을 초대하기도 했다는 것, 1만 3천 권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청나라의 文字獄 때 부관참시되고 그 저서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던 呂留良의 전집도 있었다

---

고 있으며, ‘딸바보’로 살았던 젊은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女琬壙誌銘」에 대해서는 김하라, 「조선 여성의 이름에 대한 고찰」(『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참조.

- 47) 한편 심노승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감을 좋아하는 자신의 식성에 대해 언급하며 스스로를 ‘柿癡’라 일컫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는 이에 덧붙여 “綱好 권상신이 果癖으로 소문이 났기에 한 번 만나서 서로의 과벽을 견주어보고 이야기하며 웃고 말았다”라는 재미있는 언급을 했다. 심노승 노년의 저술인 『자저실기』의 이런 내용을 보면 심노승과 권상신은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심노승은 임이주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李翊樸(1747~1812) 등 원래 가까웠으나 나중에 멀어진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 임이주를 통해 한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이다. 권상신과 임이주가 친밀한 사이였음을 감안한다면 심노승은 그를 통해서도 권상신과 이어져 있었다고 여겨진다.
- 48) 권상신은 “兪漢甦”이라 하여 그를 初名으로 칭하고 그를 위한 輓詩를 썼다.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하면 유한준은 1786년 후반까지 유한경이라는 초명을 사용했으며 1786년 12월부터 바뀐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상신이 쓴 유한준의 만사는 다음과 같다. “士悼公歸公不悲, 人間壽考欲何爲? 地下相逢應有理, 鄧攸難道竟無兒.” 그 중 ‘응당 지하에서 만날 이치가 있으리니, 등유에게 결국 아들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리’라고 한 아래의 두 구가 주목된다. 등유는 판나라 사람인데 石勒의 난 때 아들과 조카를 함께 데리고 피난 가다가 모두를 지키기 어렵게 되자 조카를 선택하여 지키고 자기 아들은 포기했던 아버지다. 이 시는 유한준이 이제 지하에서 아들 유만주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이제 슬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한준의 몰년은 1811년인데, 그 한 해 전인 1810년에 권상신은 적장자인 권경리의 죽음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유한준의 생애에서 장성한 자식을 잃은 점에 유독 주목하여 자신의 슬픔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는 것 등 그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들을 놀랍도록 많이 발견할 수 있다.<sup>49)</sup> 여기에는 경화세족의 언저리에서 중심부를 넘겨다보고 있는 유만주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는 다만 그 연회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고, 몇 번이고 비굴하게 시도했지만 여유량의 전집을 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교유인물이었다. 이에 상응하게 『서어유고』에서는 유만주에 대해 호감도 반감도 아닌 무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상신과 유만주의 관계를 벗이라 칭하고 그들을 동류로 다룬다는 데 대해 필자는 다소 회의적이다.

친인척관계를 바탕으로 유력 가문의 구성원들과 널리 이어져 있는 권상신의 교유 가운데 역관인 李光稷과 華嶽(1750~1839)과 海鵬(?~1826) 등의 승려는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이광직은 권상신이 동지부사로 파견되었던 1803년 연행 때 수행했던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다.<sup>50)</sup> 화악과 해봉은 19세기 초 서울을 근거로 활동했던 유명한 승려들인데, 화악은 영향력 있는 불교 저술인 『三峰集』을 남긴 것으로, 해봉은 그에 대해 金正喜(1786~1856)가 「僧伽寺, 與東籬會海鵬和尚」이라든가 「題海鵬大師影」 등을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모두 19세기 초반에 서울에 거주하던 사대부들과 비교적 교류가 활발했던 불교계 인사들이다.

마지막으로 문인 권상신의 가장 의미심장한 면모 중 하나를 알려주는 교유 인물들을 언급할 차례이다. 김려 및 그와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 金鋼, 그리고 鄭彥仁<sup>51)</sup>이 그들이다. 김강은 김려와 같은 연안김씨로 같은 항렬에 해당하는 중형 제뻐의 인물이고, 정언인은 김려의 오랜 지인이다.

김려로 대표되는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이 권상신과 맺은 교유의 양상은, 그것이

49) 김하라, 2011 「유만주의 『흙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0) 이해응의 『계산기정』 계해년(1803) 12월 29일조에 “次韻李光稷于野”라는 시가 보이는데 여기 언급된 이광직과 동일인이다. 같은 책 갑자년(1804) 2월 18일조에 “譯官 李光稷”이라는 말이 있어 그가 역관임을 알 수 있다. 『계산기정』과 권상신의 1803년 燕行에 대해서는 각주 11번 참조.

51) 李德懋(1741~1793)의 『아정유고』 권4에는 「夜飲權景好-禩-期, 鄭君福-彥人-不至」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언급된 정언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 시를 보건대, 권상신의 집은 이덕무와 정언인 등의 문사들이 가졌던 詩酒 모임의 장소가 되었던 듯하다.

수평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심노송의 경우와 구별된다. 즉 심노송이 권상신에 대해 언급한 정도와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인 데 비해, 김려와 권상신의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려 쪽에서는 권상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김려는 『담정총서』 안에 권상신의 작품을 선집하며 쓴 「題日紅堂漫稿卷後」에서 소년시절 권상신에 대해 “당시 공은 나이가 어렸으나 문장에 힘썼고 더욱이 시에 솜씨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먼 데 나무 산허리에 보이고, 가벼운 구름 스치는 걸 水面은 아네. 절로 좋은 것들 있어 다행이거니 남이 알도록 감히 고할 수 없네.’와 같은 그의 맑고 섬세한 시구를 떠올렸다. 또한 그에 따르면 권상신은 자신이 쓴 글에 애착을 가져, 노비 신분의 詩人 李奩佃(1755~1790)을 시켜 깨끗한 종이에 필사해 두도록 했다고 하는데,<sup>52)</sup> 이처럼 김려가 기억하는 권상신의 모습은, 예민하고 맑은 감성을 간직하고 작가로서 자의식을 지닌 시인의 면모가 약여하다.

같은 책의 「題西漁文章卷後」에서 김려는 “나는 아이 때부터 서어 권상서를 따라 노닐며 배우고 함께 글쓰기를 연마했다. 장성하고 늙고 나서도 언제나 그러했다. 따라서 시문과 저술에 서로 관련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sup>53)</sup>라 하여 권상신에 대해 문학적 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표했다. 이런 점에서 김려와 권상신은 이어지는 점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 관계가 김려를 중심으로 한 ‘담정그룹’이라는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

김려의 『담정유고』 권4(萬蟬窩賸藁)에는 「印札板」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다. 인찰판이란 세로줄과 테두리를 새겨, 줄이 쳐진 공책 종이를 찍어내도록 하는 목판으로서, 오늘날로 치자면 원고지를 제작하는 도구이다. 재능 있는 문인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는 유능한 편집자이기도 했던 김려는 “일만 장 종이를 찍어내노니 문방구 중 가장 공이 높다네”(搨出萬番紙, 文房功最巍)라 하여 자신에게 요긴한 물건인 이 도구를 예찬한 바 있다. 그런데 ‘배나무로 만든

52) 公時年少, 力文章, 尤工於詩, 如‘遠樹山腰見, 輕雲水面知, 幸堪持自好, 不敢告人知’等句, 皆膾炙人口. 公亦自愛惜其咳唾, 常使李奩佃搨淨紙畵寫,

53) 余自兒時, 從西漁 權尙書游學同研墨, 及長而老而常然, 故於詩文著述, 未嘗不相關也.

이 자그만 인찰관은 西漁 公으로부터 얻은 것이다<sup>54)</sup>라는 自註를 보면 이는 권상신이 김려에게 준 물건임을 알 수 있다.<sup>55)</sup> 권상신은 그 외에도 상질의 보이차를 보내 준다거나,<sup>56)</sup> 김려가 아플 때 유능한 의원을 구해 보낸다거나<sup>57)</sup> 하는 등 김려를 물심양면으로 보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김려는 그런 일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이런 기록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는 김려가 유배에서 풀려난 후 연산 현감으로 재임하고 있던 1817~1818년 무렵이다. 이때는 『서어유고』에서 김려를 표제에 드러낸 유일한 작품인 「錦城南樓與連山倅金士精-鑪-共賦」라는 시가 씌어진 시기와도 맞물리므로, 김려와 권상신의 교류에서 유독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로서 이 무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려가 연산 현감으로 부임하던 1817년에 권상신은 충청도관찰사로 부임했다. 김려에게 이 점은 반가우면서도 서글픈 상황이었던 듯하다. 그는 벗 정언인의 시집에 쓴 서문인 「鄭農塢詩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마 있지 않아 나는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되어 북쪽이며 남쪽으로 귀양을 보내져서, 변방을 따라 수십 년을 떠돌다 돌아왔다. 그리고 西漁 公의 경기감사 집무실에서 君博(정언인의 자)을 다시 만나 손을 잡고 옛일을 말했다. (...) 서로 소리쳐 부르며 오르락내리락 쫓아다니던 게 어제 같은데 어느새 세 사람이 다 늙어 흰머리가 되었다. 비록 영광과 초라한 처지가 같지 않지만 만났다 헤어지는 게 이처럼 무상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정축년(1817) 서어 공은 충청도의 관찰사로 나오게 되었고, 군박은 또 서어 공의 객이 되었으며, 나 역시 연산 현감이 되어 다시 충청 감영의 연초당에서 만나게 되었다.”<sup>58)</sup>

54) 梨木小印札板本, 乞得於西漁公者.(김려, 『담정유고』 권4, 「印札板」)

55) 권상신이 소유한 인찰관이 어떤 형태였는지 비슷한 실물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권상신의 고종사촌인 이유명의 문집 『東圃齋草』는 그 판심에 ‘日紅堂藏’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그 인찰관의 원소유주가 권상신임을 알 수 있다.(김영진, 2008, 「이유명의 『동포제초』와 일홍당장 판심 원고지」, 『고전과해석』 5)

56) 普洱龍團品, 賽過雙井茶. 石泉烹一撮, 蟹眼噴香霞. 按相西漁公, 餉普洱大龍團一枚.(『滯庭遺藁』 권4 「普洱茶」)

57) 閱盡湖醫病漸荒, 李翁看症最精當. 清晨診脉探囊訣, 拈出升陽順氣方. 巡相西漁公, 送李醫宜道診余病, 其術比諸醫差勝.(『滯庭遺藁』 권2 「良城春嚙集」)

소년시절 어울리던 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어 마주치게 되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김려는 또렷이 그려내고 있다. 그는 아마 회한과 자괴감을 배제하지 못한 채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상신의 경우에도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권상신이 이 만남에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는 김려의 다음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신미년(1811) 여름, 서어 공이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천연정에서 서로 만났다. 그는 시문의 초고 약간 권을 나에게 주며 편차를 고르고 검토하여 바르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윽고 나도 현직에 제수되어 이 일에 미처 종사하지 못했다. 작년(1817) 겨울, 나는 은혜를 입어 연산에 고을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이 때 공은 관찰사로 이 도에 또 부임하였으니 서로 얻은 즐거움은 알 만하다. 역시 우연이 아닌 일이다. 마침내 공무의 여가에 공손히 교열하고 조카인 학연에게 시켜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게 하여 한 권을 이루었다.<sup>59)</sup>

권상신에게 1811년은 적장자를 잃은 이듬해다. 흥직필 등은 권상신의 생애를 서술하며 아들의 요절에 그가 관료로서의 경력을 포기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특기한 바 있다. 앞서 김려가 파악하였듯 권상신은 일찍부터 문예취향에 기울어 있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을 놓지 않은 문인이었다. 문인으로서 자신의 작품을 책으로 남기고자 하는 바람은 당연한 것이었을 터인데 그는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으로 기대한 자식을 잃은 것이고, 경기도관찰사 시절과 충청도관찰사 시절에 김려를 거듭 만나 문집의 일을 거듭 의탁했던 것도 그런 사정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권상신이 직속상관에 해당되었던 후자의 시기에 그 일이 성사된

58) 未幾, 余坐飛語獄, 北竄南謫, 流落塞徼數十年而歸, 遇君博於西漁公之畿輔布政司, 握手道故舊, (….) 相上下馳呼角逐, 猶如昨日, 而忽焉之間, 三人者俱老白首矣, 雖榮悴升沉之不同, 而聚散離合之無常亦如此, 寧不悲歎! (….) 丁丑, 西漁公出鎮湖西, 君博復爲客於公, 而余亦監務連山, 更遇於錦營之燕超堂.(『瀟庭遺藁』 권20)

59) 辛未夏, 公以京畿道觀察使, 相遇於天然亭上, 以詩文稿若干卷贈余, 使之撰次攷正, 已而余亦除職, 未及從事於斯, 昨年冬, 余蒙恩出宰連山, 是時公以道伯, 又臨茲道, 相得之歡, 可知也已, 且事非偶然, 遂於公暇, 恭加校閱, 使猶子鶴淵移寫淨紙爲一卷云.(『瀟庭遺藁』 卷10, 「題西漁文草卷後」)

것도 우연은 아닐 터이다.

요컨대 권상신과 김려의 교유에서는 충청도관찰사와 그 휘하 연산 현감이라는 상하관계가 무시될 수 없으며, 이들이 그런 처지의 차이를 극복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김려가 권상신의 문집을 편차하여 자신의 『담정총서』에 넣은 것은 권상신의 의뢰에 의한 것이고, 거기에는 일종의 상하관계가 개입해 있다. 이런 점에서 권상신을 담정 그룹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이며, 김려는 권상신에게 문예적 성향을 공유하는 同人이라기보다는 유능한 편집자가 아니었을까 한다.

## 5. 결론에 대신하여

권상신은 공적 견지에서 경화세족의 핵심부에 있으며 평생 화려한 이력을 이어나간 현달한 관료이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일상과 감정, 자신과 만난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는 일에 의의를 두고, 자신의 심미적 취향을 견지하며 자신의 글에 애착을 보인 문인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이 공간된 문집을 두지 못한 채 미완의 稿本만 남기고, 휘하의 관료에게 문집의 편찬을 손수 의탁해 역시 필사본 선집만을 남겼다는 것은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앞서 그와 병칭되었던 김조순과 남공철, 심상규 등의 경우를 보아도 이들의 저술은 저자의 당대 혹은 저자 사후 얼마 있지 않아 대부분 활자본 형태의 대규모 문집으로 공간되었다. 권상신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문집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모로 의문을 남기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18~19세기에 들어 조선에서는 주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집의 간행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다.<sup>60)</sup> 이는 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60) 신승운, 2001 「유교사회의 출판문화: 특히 조선시대의 문집 편찬과 간행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39, 365-394면.

훌륭한 조상을 현창하여 가문의 위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문집간행이 개인의 문예적 성취와 크게 상관없이 사회적 차원에서 시도되었음을 알려주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아직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문학에 애착을 가지고 문예적 측면에 집중한 자의식 넘치는 작가들의 흐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문집 편찬이 개인적인 숙원사업이 될 여지도 있었을 듯하다.

권상신이 자신의 취향을 한껏 발휘하여 작품활동을 하고, 그 원고를 이단전 같은 하층의 시인에게 의뢰하여 필사하고, 김려 등 주변부에 있으나 탁월한 감식안과 편집능력을 지닌 편집자에게 의뢰하여 책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등의 시도를 생전에 보였던 것,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공간의 문집을 남기지 못했던 것 등, 권상신과 그의 『서어유고』는 19세기 조선에서 어떤 경우에 문집이 편찬되고 혹은 편찬되지 못하는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젯거리를 던져 주고 있다.

논문투고일(2015. 4. 30), 심사일(2015. 5. 22), 게재확정일(2015. 6. 2)

## 참고문헌

- 勸 養, 『汶湖雜著』(규장각 소장)  
 權常愼, 『西漁遺稿』(규장각 소장)  
 金 鏞, 『瀟庭叢書』(통문관 소장) 학자원 영인본, 2014.  
 \_\_\_\_\_, 『瀟庭遺稿』(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89, 2002.  
 \_\_\_\_\_, 『글짓기 조심하소: 金鏞 선집』(오희복 역) 보리, 2006.  
 金相休, 『蕉泉遺稿』(규장각 소장)  
 金履陽, 『金履陽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金祖淳, 『楓臯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89, 2002.  
 南公轍, 『金陵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72, 2001.  
 申 緯, 『警修堂全藁』(장서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91, 2002.  
 沈魯崇, 『孝田散稿』(연세대 소장) 학자원 영인본, 2014.

- \_\_\_\_\_, 『自著實記』(안대회 역) 휴머니스트, 2014.
- 沈象奎, 『斗室存稿』(일본 동양문고)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90, 2002.
- 吳淵常, 『約園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俞晚柱, 『欽英』(규장각 소장) 서울大學校 奎章閣 영인본, 1997.
- 尹行恂, 『碩齋稿』(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87-288, 2002.
- 李明五, 『泊翁詩鈔』(고려대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續) v.102, 2009.
- 李敏輔, 『豐墅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32-233, 1999.
- 李始源, 『隱几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李惟命, 『東圃齋草』(규장각 소장)
- 李廷煌, 『鈍窩府君遺草』(규장각 소장)
- 李肇源, 『玉壺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李最中, 『韋庵集』(고려대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續) v.83, 2009.
- 李海應, 『薊山紀程』(차주환 역), 민족문화추진회, 1976.
- 張 混, 『而已廣集』(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70, 2001.
- 鄭元容, 『經山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300, 2002.
- 趙斗淳, 『心庵遺稿』(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307, 2003.
-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규장각 소장)
- 趙榮順, 『退軒集』(고려대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續) v.89, 2009.
- 洪直弼, 『梅山集』(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95-296, 2002.
- 洪奭周, 『淵泉集』(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293-294, 2002.
- 洪仁謨, 『足睡堂集』(연세대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103, 2010.
- 洪翰周, 『海翁集』(규장각 소장),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v.306, 2003.

**Abstract***Seoeoyugo*, the Posthumous Works of Kwon Sangshin  
and its Periphery

Kim, Hara

This study suggests intensified clarifications about Kwon Sangshin 權常愼's associates which include some writers as Yu Manju 兪晩柱 and Kim Lyeo 金鏞. This significant marginal writers often made mention of their acquaintance Kwon in their works. And he has been regarded as their literary coterie. Being based on the statement of one side, little is known about how Kwon's thoughts for this view was. After a review of *Seoeoyugo* 西漁遺稿, the posthumous works of Kwon Sangshin, I came to the conclusion their relationship should be defined in a different way, not an intimate coterie but an intermittent and vertical relationship focused on Kwon's socio-economic advantages. Kwon's identity as a literary person is concerned with his remarkable socio-economic status. At this point, Kim Yiyang 金履陽 who was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and a patron of Uncho 雲楚, the courtesan poet could be regarded as Kwon's intimate literary coterie. Kwon Sangshin and Kim Yiyang shows affined relationship overlapping social status as a member of mighty clans of Seoul and an aesthetic literary taste.

**Key words** : Kwon Sangshin 權常愼, *Seoeoyugo* 西漁遺稿, mighty clans of Seoul, Kim Yiyang 金履陽, courtesan poet